

學問精進의 氣風과 教育聖業의 使命

— 第4代 院長就任에 즈음하여 —

院 長 金 安 濟

學問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萬世에 남길 業績을 쌓는 榮光의 길이요, 教育의 길은 고되고 어렵지만 未來의 人材를 기르는 보람의 길이다. 大學은 심오한 眞理를 탐구하고 學問을 研究하는 동시에 人材를 양성하고 高級人力을 배출하는 機能을 수행함으로써 國家發展을 촉진하고 社會變動을 올바르게 유도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學問과 教育의 最高中樞機關이다. 멀고 고된 길에서 험하고 어려운 與件을 무릅쓰고 榮光의 기쁨과 보람의 自慰 속에서 崇高한 使命感을 가지고 學問과 教育에 전념하는 것이 大學의 참모습이요 大學人의 理想인 것이다.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은 國土와 都市 및 地域의 건전한 發展을 先導할 수 있는 力軍을 양성키 위해 1969年 1月 13日에 行政大學院의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로 出帆하였고, 國家와 社會의 要求에 더욱 부응키 위해 1973年 1月 25日에는 독립된 大學院으로 昇格되었던 것이다. 學科出帆에서 18年, 大學院設立에서 14년이란 期間이 흐르는 동안 教授와 學生 및 卒業生의 일치된 努力과, 大學當局은 물론 政府와 社會各層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로 괄목할만한 成長을 하여 오늘과 같은 확고한 地位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機關創設과 基盤造成에 모든 努力을 기울이셨던 盧隆熙 初代院長任과 機關의 擴大와 成長에 크게 기여하신 權泰坡 第2代院長任, 그리고 內實과 安定을 구축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신 崔相哲 第3代院長任의 勞苦와 獻身은 오늘과 같은 위대한 大學院으로 발전시키고 훌륭한 役割을 다하도록 만드는데 絕對的 功獻을 했던 것이다.

그동안 各界에서 有益한 活動을 하고 있는 587名의 碩士를 배출하여 온 環境大學院은 현재 環境計劃學科 및 環境造景學科의 2個學科와 附設의 環境計劃研究所를 가지고 14名의 教授陣과 4名의 助教, 16名의 研究員과 10名의 行政職員이 177名의 碩士學位課程學生과 11名의 博士學位課程學生을 教育하고 研究를 수행하는데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國土開發, 都市計劃, 地域開發, 造景, 都市設計, 環境管理 등의 分野에 대한 綜合的이고 學際的인 接近으로 理論鍊磨와 實際活用の 資質을 함양키 위한 研究와 教育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調査·研究를 통한 學問의 發展과 教育·訓練을 통한 人材養成은 물론 諮問·指導를 통한 社

會의 奉仕活動에 있어 斯界의 中樞의 地位를 가지고 先導의 役割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 이와같은 地位와 役割로 인해 本大學院에 부하된 責務는 대단히 무거우며 社會的 要求와 時代的 使命 또한 더없이 큰 것이다.

이제 正常的 軌道에 진입하여 안정된 基調위에서 건전한 大學의 틀을 공고히 하게 된 本大學院은 주어진 召命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盡力해야 할뿐만 아니라 보다 積極的이고 創造的인 자세를 가지고 學問的 理想과 教育的 理念을 발전적으로 구현해 나가는데 모든 슬기를 모아 全力을 기울여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 먼저, 組織으로는 目標志向의 組織體系와 能率爲主의 機構編制를 강력히 구축하고, 모든 部分의 하나로의 一體化와 共同目標의 部分으로의 分業化를 무리없이 형성시키며, 部分間의 協助와 牽制를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運營에 있어서는 成果主義管理에 力點을 두되 教授陣을 위시한 모든 構成員의 能力이 최대로 발휘되고 全體의 意思와 要求가 원활히 收斂·實現되며 安定과 和睦의 風土위에서 個人의 成長·發展과 便宜·福祉가 보장될 수 있는 方向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장 중요한 機能面에서는 人材教育과 學問研究 및 社會奉仕라는 지금까지의 固有機能을 그대로 지속하되, 人材教育에 있어서는 특히 理論的 體系와 實際的 活用能力을 겸비함으로써 스스로 問題를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自主的 力量을 갖도록 教育·指導하고, 學問研究에 있어서는 國際的 感覺을 가지고 先進國水準에 이르도록 하되 韓國의 特性에 부합하는 理論과 方法 및 政策을 개발하여 그 뿌리를 定着시키도록 하며, 社會奉仕側面에서는 올바른 方向 및 指標의 제시와 필요한 情報의 확산으로 快適하고 편리하며 능률적인 空間環境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할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는 本大學院이 가진 規模의 倭小性과 能力의 限界性을 극복하여 關聯學科들로 統合된 大規模의 大學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때까지는 關聯學科와의 긴밀한 連繫와 協同體制를 강화해 나가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內實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밖으로는 社會的 需要에 부응하면서 時代的 變化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유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卒業生을 포함한 環境大學院家族의 團結과 和合이 강화되고 가일층의 發展을 위한 일치된 努力이 경주될 때 本大學院의 地位와 役割은 확고히 되며 社會各界로부터의 支援과 協助는 자연히 제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環境大學院의 무궁한 발전을 確信하면서 이를 위한 聖業에 誠과 熱을 다할 것을 스스로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大學의 길은 明德을 밝게 하는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데 있으며 至善에 머무르는데 있다)―[大學]